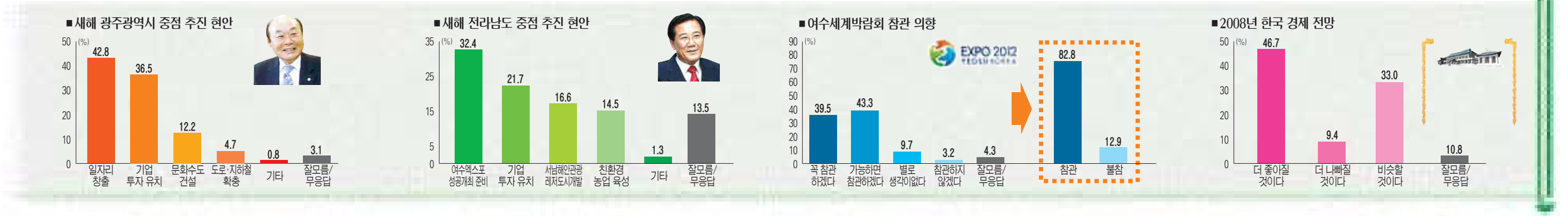




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(Research & Research)에 의뢰 해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총선 직전까지 수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. 조사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본다.

광주·전남주민 의식조사



“돈 벌어도 고향서 계속 살겠다” 85%

〈광주·전남〉

광주·전남 현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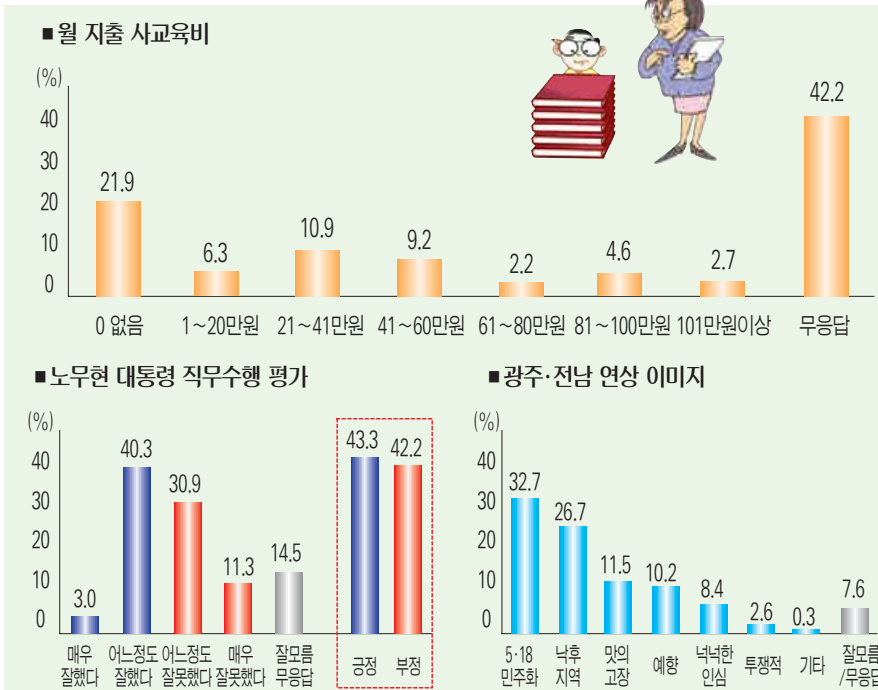
새해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는 ‘일자리 창출’이 42.8%로 가장 높아 새 정부에 바라는 기대와 궤를 같이 했다. 여기에 ‘기업 투자 유치’(36.5%)까지 포함시킬 경우 경제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79.3%에 달했다.

그 뒤를 이어 ‘문화수도 건설’은 12.2%, ‘도로 및 지하철 확충’은 4.7% 순이었다.

39.5%, ‘가능하면 참관하겠다’는 43.3%였다. ‘별로 생각이 없다’는 9.7%였고, ‘참관하지 않겠다’는 3.2%에 그쳤다.

경제 전망 및 체감경기

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는 46.7%가 ‘더 좋아질 것이다’라고 응답했고 ‘더 나빠질 것이다’는 9.4%에 그쳐 경제살리기에 무게중심을 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



광주 우선 현안은 일자리 창출·기업투자 유치

“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참관 하겠다” 83%

전남도가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‘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준비’가 32.4%로 가장 많았다. 지난해 여수 개최가 확정돼 4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2 세계박람회에 대한 준비작업에 행정력을 모아달라는 요구다. 이어 ‘기업투자 유치’ 21.7%, ‘서남해안관광벨트 도시 개발’ 16.6%, ‘친환경농업 육성’ 14.5%로 나타났다.

여수 박람회 참관 의향

2012년 5월부터 3개월동안 열리는 여수 세계박람회를 참관할 의향이 있는지 묻은 결과 시·도민 5명 중 4명 이상(82.8%)이 ‘참관하겠다’고 응답,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.

이는 광주일보의 지난 2005년 신년여론조사 때보다 7.4%포인트 상승한 것이다. ‘꼭 참관하겠다’는 적극 참관 의향층은

반영했다. ‘비슷할 것’이라는 의견은 33.0%였다. 이는 지난해 조사와는 상반된 결과다. 지난해 신년 조사에서는 ‘더 나빠질 것’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42.7%로 ‘더 좋아질 것’(32.8%)이라는 낙관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
1년 전 보다 생활경관이 나아졌는지 여부를 묻은 결과 62.2%가 ‘비슷하다’고 응답했고 ‘나빠졌다’는 의견은 27.2%, ‘좋아졌다’는 9.7%로 조사됐다. 지난해 신년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

정주(定住)의식

경제적 낙후에도 불구하고 광주·전남지역민들의 ‘정주(定住)의식’(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욕구)은 크게

높아져 고향 및 거주지에 대한 강한 애착을 반영했다. ‘돈을 많이 벌거나 크게 성공한다면 광주·전남에 계속 눌러 살겠느냐’는 질문에 85.4%가 ‘계속 살겠다’고 응답해 압도적으로 높았다. 이같은 비율은 지난해 신년 조사 때보다 2.4%포인트, 지난 2005년 4월 광주일보 창사특집 설문조사 때(71.1%)에 비해서는 14.3%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. ‘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겠다’는 의견은 12.8%에 그쳤다.

‘계속 살겠다’는 의견은 50대 이상(93.8%), 학력이 낮을수록(중졸 이하 92.8%),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(90.6%)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월 지출 사교육비

매달 자녀 1인당 사교육비로 얼마나 정도 지출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‘21만~40만원’이 10.9%로 가장 많았고 ‘41만~60만원’이 9.2%로 그 다음이었다. 또 ‘1만~20만원’은 6.3%, ‘81만~100만원’이 4.6%, ‘61만~80만원’ 2.2%였고 ‘101만원 이상’도 2.7%나 됐다.

자녀가 없거나 아주 어린 층이 대부분으로 보이는 무응답자가 42.2%에 이른 가운데 ‘사교육비 지출이 없다’는 답변도 21.9%에 달했다.

광주·전남 연상 이미지

‘광주·전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’로는 ‘5·18 민주화 성지’를 꼽은 응답자가 32.7%로 가장 많았다.

광주일보 신년 주민 의식조사 어떻게 했나

2008년 신년특집 주민의식조사는 광주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(Research & Research)에 의뢰, 지난해 12월 22일 실시됐다.

광주·전남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가운데 600명을 유효 표본으로 추출해 구조화된 질문지와 숙달된 전문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방식(CATI)이 사용됐다.

각 지역별 인구수 비례에 따라 성별·연령별 쿼터를 할당한 뒤 전산화된 전화번호 인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응답자는 광주 244명(40.7%), 전남 356명(59.3%)이었다.

성별로는 남자 294명(49.0%), 여자 306명(51.0%)이었고, 연령별로는 19~29세 123명(20.5%), 30대 125명

(20.8%), 40대 126명(21.0%), 50대 이상 226명(37.7%)이었다.

직업별로는 농림어업 82명(13.7%), 자영업 58명(9.6%), 블루칼라 59명(9.8%), 화이트칼라 99명(16.5%), 가정주부 172명(28.7%), 학생 43명(7.1%), 무직 및 기타 88명(14.6%) 등으로 나타났다.

정치 성향별로는 ‘보수적’ 153명(30.9%), ‘중도적’ 168명(33.8%), ‘진보적’ 175명(35.3%) 등이었고, 월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 243명(47.4%), 201만~300만원 124명(24.2%), 301만~400만원 59명(11.5%), 401만원 이상 87명(16.9%)로 집계됐다.

이번 조사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4.0%포인트다.

‘낙후지역’이라는 응답도 26.7%로 2위를 차지해 여전히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민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.

그 다음으로 ‘맛의 고장’을 꼽은 응답자가 11.5%였고, ‘예향’ 10.2%, ‘낙낙한 인심’ 8.4%, ‘투쟁적이다’ 2.6% 순이었다. 지난해 신년 조사때는 ‘낙후지역’이라는 응답이 27.5%로 수위를 차지했고 ‘5·18 민주화 성지’가 26.7%로 그 뒤를 이었다.

새해 소망

2008년 새해 개인적으로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49.1%가 ‘나와 가족의 건강’을 꼽아 가장 많았다. 건강에 대한 욕구는 2007년 새해 조사때보다 15.4%포인트 상승한 것이다.

이어 ‘경제적 여유’ 22.5%, ‘가족 화목’ 9.9%, ‘취업’은 7.3%, ‘연봉인상’ 3.6% 순이었고 ‘결혼 및 출산’은 2.2%, ‘진학’은 1.8%, ‘승진’은 1.3%로 조사됐다.

노 대통령 직무 평가

지난 5년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43.3%(매우 잘했다 3.0%+어느 정도 잘했다 40.3%), 부정적 평가가 42.2%(매우 잘못했다 11.3%+어느 정도 잘못했다 30.9%)로 팽팽했다.

긍정적 평가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23~24일 광주일보-한국지방신문협회 5차 조사때의 53%대 보다 10%포인트 가량 떨어진 것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‘노무현 정부 대선 책임론’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
그러나 전국적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30%안팎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의 산실이었던 광주·전남 유권자들이 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준 셈이다.

/정후식기자 who@kwangju.co.kr

